



아나 가야르도

개가 상처를 핥듯, 입에서 흘러내리는 침으로 상처를 닦다

이 글은 작가가 타액을 세척제 삼아 어머니의 오래된 그림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다룬다. 복원 행위는 작품과 작가, 그리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 사이에 친밀한 연결을 만들어낸다.

부드럽고 미끈거리는 질감은 늘 역겨웠다. 젤라틴 같은 건 뭐든 구역질 난다. 그래서 침도 싫어했다. 늙은 여자의 침이 떠오른다. 내 입에서는 침이 흐르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썼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나이 들어 가면서, 변해가는 내 몸의 면면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취향도 다듬어갔다. 젊었을 때는 존재조차 몰랐던 내 몸의 부분들, 한때 역겹게 느꼈던 부분들을 이제는 활용한다.

그 사이 내 침에 대해 알게 됐다. 나는 내 침에 다양한 속성이 있다고 믿는다. 세월이 흐르면서 더 진하고 무거워졌다.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말할 때, 진하고 무자비한 내 침이 나를 지켜준다. 불안을 다스릴 때 꼭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덮쳐오면 침이 입안 전체를 채우며 이 사이사이로, 입술 안쪽과 부드러운 볼 사이로 흘러든다. 목 뒤에서 올라오는 건조함에 질식하지 않게 늘 나를 구해준다.

최근에야 이 모든 걸 알게 되었다. 예술 작업을 하면서, 늙어가면서, 모든 젠더를 아우르는 또 다른 늙은 몸들과 대화하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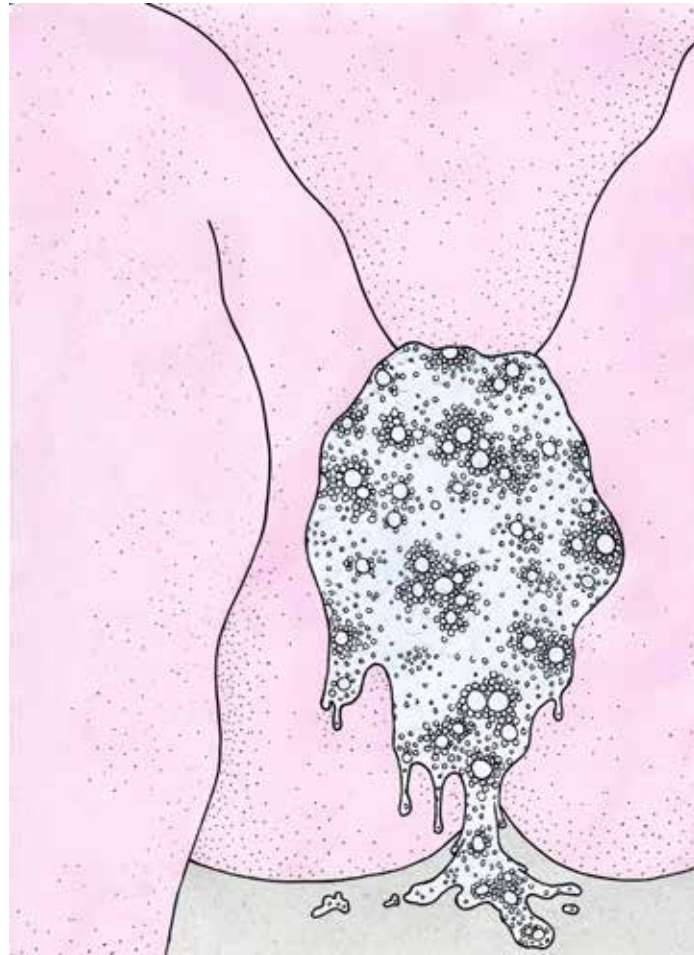
예술계에선 젊었을 땐 눈에 띄지 않았다가 주목받는 늙은 여성 작가가 되는 것이 요즘 꽤나 유행이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신만의 늙은 여자를 발굴하고 되살려내려고 필사적이다. 침이 탁한 늙은 여자를. 그래서 나도 내가 부활시킬 나만의 늙은 여자를 찾기로 했고, 내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했다.

(상탈 아커만의 <우리 엄마가 웃는다>가 떠오른다. 마음이 누그러진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낸 연애편지를 발견했다. 환상적이던 연애 시절의 편지들. 이 편지에서 어머니가 예술가들에게 품었던 격렬한 열망을 알게 됐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었기에 겪어야 했던 엄청난 두려움과 폭력마저도. 계급과 종교와 젠더의 폭력에 갇힌 여자. 가깝지만 닿을 수 없는 세계를 향한 명백한 열망, 탐욕이 있었다. 어머니의 입에 침이 고이는 모습이 떠오른다.

내 어머니, 마리아 델 카르멘은 수백만 년 전 내가 겨우 일곱 살이던 때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 다른 종류의 작가가 되고 싶었던 걸까. 담배와 와인 속에서 살며,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는 냄새가 밴 작업실을 가진 여성 작가들처럼. 그때 어머니는 정물화와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으니까.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처음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의 어조가 어땠는지, 그녀가 내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여자였다는 건 몰랐다. 바로 그때 어머니의 그림을 찾아 직접 손으로 복원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일곱 점을 찾았다. 먼저 유화 다섯 점이 여기, 내가 몇 년째 살고 있는 멕시코시티에 있었다. 작품들은 계단실 벽에 걸려 있었다. 높은 곳에



있어서 청소하기 어려웠을 테고, 그래서 지저분했다. 어머니는 산탄데르에서 남매들을 만나러 올 때 멕시코시티에서 이 그림들을 그렸다. 친척 일부가 멕시코인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조부모님, 이모와 삼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왔다. 그 시절 어머니는 오후마다 도시 북쪽, 가족 소유의 크고 텅 빈 낡은 집에서 작업했다. 그러다 갑자기 다른 그림들이 내 손에 들어왔다.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내가 하려는 일이 옳다고 말해주었다. 수백만 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내게 복수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이 그림들을 복원하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복원 과정에 대한 의문이 밀려왔다. 복원 작업을 하겠다는 결정은 어떻게 내리는 것이며, 그런 결정은 무엇을 함축하는가? 집단적으로 내리는 결정인가? 집단적인 결정이라면, 작품과 주어진 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 그 행위는 개인적인 것이 되는가? 작업하는 복원가의 기억에는 어떤 무게가 실리는가? 이 행위가 역사 기록의 서술에 미치는 정치적 힘을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든 그것은 언제나 권위적이고 위계적이며 허구적인 제스처가 될 것이라는 느낌이 좋았다. 내 마음대로 복원을 수행하고, 내 입맛에 맞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느낌이 좋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그림들을 마주했다. 너무나 바싹 말랐고, 표면에는 자국이 나 있었다. 그리고, 잊힌 채였다. 내버려진 것처럼. 나는 질료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망각에 대한 저항이 깃들어 있다는 것. 그림들이 은밀한 저항 속에서 기다리듯 살아 있다는 것을.

유화 가운데 한 점의 뒷면에서 미완성 그림을 발견했다. 몸을 그린 작품. 엉덩이 아래부터 무릎까지, 거대하게 확대한 듯한 다리가 날것의 살색으로 그려져 있다. 다리 사이에는 검은 삼각형 얼룩, 여자의 치부가 있다. 완성되지 않았다. 존재하고 싶었으나 존재할 수 없었던 무언가. 실패한 시도였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내가 뭘 알겠는가.

앞면에 있는 것, 원래의 것이자 중요한 작품은 정물화다. 매달린 죽은 새와 테이블보가 놓인 테이블, 과일 바구니, 그런 류의 것들을 그렸다. 그림의 양면 모두 물감층이 두텁다. 캔버스는 딱딱하고 갈라졌다. 분명 건조하지만, 작품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느껴진다. 무엇을 복원해야 하는지, 두 면 중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볼지 어떻게 판단할까. 다른 작품의 뒷면에는 만년필로 그은 선과 점이 있다. 내가 그린 것이거나 여동생이 그린 것일 텐데, 내가 그린 거라는 걸 안다.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 폭력적으로 전유한다.



액자를 땀 때마다 가장자리를 확인하고, 나무틀과 캔버스 사이를 전부 살핀다. 무언가 더 찾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이 “구출된” 그림들을 복원하기로 결심했다. 전문 복원가인 체마에게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고, 그들이 타액의 속성을 설명해주었다. pH가 딱 맞다거나 하는 이유로 세척에 가장 좋은 재료라고 했다. 많은 복원가가 화학약품 등장 이전의 방식을 여전히 선호한다고도 했다.

그래서 내 침으로 어머니의 그림을 닦기로 했다.

내가 테이블에 앉아 그림 위로 우리를 비추는 램프 아래 머무르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다. 이상한 조명을.

먼저, 어김없이, 흰 천으로 표면을 닦아 삶의 나날 동안 쌓인 먼지를 제거한다.

그다음, 집중하려 애쓴다.

표면 전체를 손으로 쓸며 기억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 (엄마)

잡을 수 없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것 같다.

..... (엄마)

첫 번째 면봉을 적시며 시작한다. 면봉을 입에 넣고 혀를 말아 적신다. 동그랗게 말린 혀 안에 면봉을 넣었다 빼면 입꼬리에서 침이 한 줄기 흘러나온다. 그것을 그림에 문지른다. 처음 느낌은 아주 복잡적이다. 모종의 신성한 효과가 있다는 걸 깨닫는다. 타액 안으로 들어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려고 역겹고 축축한 여행을 떠나고 싶은 것처럼. 다른 젖은 면봉으로 같은 작업을 하고, 찌든 때와의 대화가 시작된다. 면봉이 검게, 더럽게, 완전히 지저분하게 변한다. 역시 더러운 침 한 줄기가 입술에 매달리고, 면봉으로 그걸 잡아 캔버스에 내리고, 문지른다. 또 다른 침 묻은 면봉은 미심쩍은 방식으로 색을 드러낸다.

그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붓질이 쌓인 층들을 서서히 발견한다. 불가능한 물감 위로 힘겹게 끌려간 팔레트 나이프의 흔적, 겹겹이 덧칠된 것들. 거의 딱지가 앉은 것 같다. 언제나 지저분하게 나오는 색상으로 이미지를 출현시키려는 거대한 분투가 기록되어 있다. 이 팔레트에는 슬픔, 지루함, 상실, 기쁨, 감각이 넘쳐흐른다.



침을 흘린다는 건 잊힌 것 위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내 침,
 내 침방울, 어머니의, 할머니의, 딸의, 언니의 침방울.
 내 침은 한때 존재했던 것을 드러낸다. 오직 내 침으로만 닦으면,
 고통받는 이 그림들이 불러일으킨 감정이 나타난다는 걸 깨닫는다.
 나 또한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내 침은 이젤 앞에 캔버스를 놓고 서서 꿈꾸던 순간을, 어쩌면
 허구적 욕망을 닦으려 애쓰는 한 여자를 묘사한다. 가장 지저분한
 침에 적신 면봉으로 작업을 계속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겹겹이
 덧칠된 지루하고 따분한 층들이 계속 보인다. 색상은 분명
 불가능하다. 지저분함을 바라지 않는 곳에서 지저분해 보인다.
 내 침은 패배와 싸우다 무위로 돌아간 과정을 덮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던 먼지를 들어올린다. 내 침은 그 작은 땅, 버려진 땅, 저항하는
 땅을 닦아낸다. 내 침으로 닦아내면, 마치 그리는 것 같다. 마침내
 색이 나타나는 것처럼, 마침내 보이는 것처럼.

누군가 그걸 바라본다.

다른 면봉을 꺼내 침으로 적시려는데, 먼저 입을 행군다. 레드 와인을 마시고
 있어서다. 다시 침에 적신 면봉으로 문지르며, 서서히 손상된 부분을 드러낸다.
 갈라진 부분, 물감이 없는 곳, 재료가 떨어져나간 빈 곳, 굽힌 자국, 크라클뤼르,
 불투명한 얼룩을. 찢긴 캔버스의 구멍들, 뾰족한 구두코로 뚫린 것 같은 캔버스
 를. 나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본다. 모든 규칙을 따르며 복원한다
 면, 작품을 수리한다면, 빠진 것을 채운다면, 부서진 부분을 막는다면, 벗겨진
 물감 조각을 덧칠한다면, 나는 역사를 바꾸는 것이라 믿는다.

그림에 타액을 쓰는 것만으로도 단서를 발견했다. 거기 실마리가 있다.

그림을 복원한다면, 그림이 겪은 심대한 손상을 숨기는 셈이다.

뾰족한 구두코로 뚫린, 그림에 난 구멍은 막아버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말해준다.

상처를 막는 일.

뒷면에 여성의 다리와 성기의 스케치가 있는 그림으로 돌아가 본다.

그쪽 면을 닦으니 짜증이 켜켜이 만져진다.

다른 무언가를 향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적어두는 게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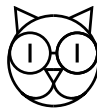
이 그림들은 두려움이 도사린 그 다른 것을 향해 건너가는 게 끝내 불가능했다고 말해준다. 어쩌면 죽음이라는 희생을 치러야만 가능했을 것이다.

그림을 손본다면, 우리가 겪은 심대한 손상을 고치는 셈이다.

그래서 나는 그저 침을 흘릴 뿐이다.

저자 소개

아나 가야르도의 작업은 예술을 반란과 변형의 장소로 제안한다. 다양한 층위의 폭력을 다루며, 현재는 노화 과정에서의 폭력에 집중한다. 90년대 초반부터 여러 독립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현재 이만 에스쿠엘라와 라 베르디 시우다드데멕시코를 운영하며 멕시코시티의 SOMA에서 강의한다.



Wild Papers 편집자: 임고 니어만

스페인어 번역: 수 브라운브리지

영어 번역: 박재용

영어 편집: 로산나 맥래플린

삽화: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국문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수 브라운브리지가 스페인어 글을 영어로 번역했고, 박재용이 한국어로 증역했다.

© 2025, aliwen, Eva Fabregas & Wild Publishing,

a division of Institute Art Gender Nature at HGK Basel FHNW, Switzerland